

가축과 축산

임 락 경(목사, 화천 시골교회)

우리나라는 이상한 일이 많다. 무슨 말이든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로 해야 듣기 좋은가 보다. 처음에는 돼지독감이라 하더니 2-3일 지나 돼지인플루엔자라고 병명을 명명했다. 돼지인플루엔자라 하지 말고 피그인플루엔자라고 하던지 헴인플루엔자라고 하든 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 염려되는 것은 1918년 스페인독감과 같은 국제유행성독감과 같은 병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란다. 그때는 조류에서 온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유행했으나 이번에 예상되는 돼지독감은 젊은이들에게 온다는 것이다. 증세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식욕부진, 콧물, 설사 같은 증세이니 감기와 같다고 한다. 고기 안 먹어도 전염이 된다고 한다. 호흡기 질환자를 피하고 외출을 삼가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겨우 예방법이라 한다. 입마개(마스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한다. 현재까지 피해는 멕시코 사망자수 26명,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한명 나왔고, 감염자는 21개국 1,5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도 예외는 아니고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9명이 나왔다고 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원인은 1918년 스페인 조류독감 때나 지금이나

가축에서 오는 병이다. 몇 년 전 조류독감 때도 가능하면 철새들에게 떠넘기려다가 못 넘기고 인정했으나 그때도 그랬다. 이는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에서 오는 병이 아니다. 조류나 돼지나 사람들이 가두어 놓고 기른 동물들에게서 오는 병이다.

모든 동물들은 활동하면서 자유롭게 크게 되어있지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기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란 그런대로 이해가 된다. 가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집안에서 몇 마리씩 기르는 것이 가축이다. 소는 일 시키고 퇴비 마련하기 위해서 기른다. 먹이는 볏짚이나 옥수수대나 등거나 콩깍지나 들풀을 먹여 길렀고, 돼지는 다섯 식구 이상 살다보면 구정물과 음식찌꺼기 먹여 키워왔고, 닭은 흩어진 곡식 주워 먹고 곡식 찌꺼기 먹여 길러 왔다. 이런 동물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람과 같이 먹으며 생활해왔다. 한 집에 돼지나 소는 1-2마리, 닭은 10-20마리 정도 길렀고 들풀을 이용해 토끼나 염소 정도 길렀고, 월중 행사나 명절 때나 돼야 고기 먹고 살아왔다.

선진국은 가축이 아니라 1918년부터 대량으로 공장형축산을 시작을 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 생겨난 병이 스페인독감이라 하지만 내가 다석 유명모 선생님께 듣기로는 일제 때 이태리 독감이 있었다고 하신다. 이를 더러는 홍콩독감이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때는 지금 처럼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 없어 소식들을 몰라 홍콩 갔다 와서 생긴 독감이 홍콩독감이었다고 하셨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축(家畜)이 축산(畜産)으로 바뀌면서 생긴 병이다. 이런 글 쓰면 우리나라 축산업자들 반발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축산은 축산도 아니다. 소 많이 길러야 몇 백 마리 닭 길러야 몇 만 마리다. 그 정도는 외국에서는 가축이다. 미국에서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본 곳은 소 기르는 공장이었다. 한 사람의 농장(소 공장)을 자동차 타고서 한참을 지났다. 이런 곳에서 생겨난 병이다. 멕시코는 옛날에 곡창지대였고 농업국이었다. 그 때는 잘사는 나라였다. 잘 사는 산업

국이 아닌 농업국이다 보니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 농지 역시 고루 나누어 짓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이 다 차지하고 나니 빈부 격차가 심하고 소농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되고 일용직 없으면 거리로 나가게 되었다.

대농이나 자본농에서 대량생산한 곡물을 고루 나누어 먹지 못하고 짐승을 대량으로 길러 더 잘사는 나라에 팔려고 곡물을 많이 먹는 돼지를 기르다 보니 생긴 병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곡물을 잘 못주어 생긴 병으로서 감기가 아닌 독감이 된 것이다. 원인은 배합사료를 잘 못 배합해서 생긴 것이다. 돼지는 지방질이 많이 필요한 동물이다. 그런데 먹이를 곡물로만 배합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멕시코에서는 유럽처럼 고기가 섞인 사료가 많지 않아 고기가루를 배합사료에 적게 배합했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고기가루를 돼지에게 많이 먹였다면 중풍이 왔을 터인데 많이 먹이지 못해서 지방질, 단백질이 부족해 멕시코의 돼지들은 감기 걸리고 감기 중에서 독감이 걸린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체질과 비슷한 사람들에게도 옮는다.

축산업자들 반발 할까봐서 고기 먹고는 안 걸린다고 안심시키고 있다. 안심시킨 이들 모두 멕시코로 가서 돼지고기 실컷 먹고 왔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또다시 돼지고기 수입을 국민건강 핑계대로 중단 했으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고기수입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또 고기 적게 먹기 운동이라도 핑계 삼아 하고 싶다. 모든 것은 정치나 사회운동 측면에서 풀리지만 우리만이라도 고기 적게 먹기, 수입고기 안 먹기를 하였으면 한다.

5년 전 전국적으로 유행성독감이 왔었다. 바로 우리 마을 광덕초등학교에도 왔었다.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닌 5학년 대신이가 독감이 걸려 학교에 못 가고 열이 나서 부어 있었다. 그날 독감으로 결석한 아이가 세 명이었다. 교장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3명이 결석을 하였으니 큰 사건이라고 하신다. 교장 판단으로는 전교생 휴교를 해

야 하고, 또 전교생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내 의견을 물어본 전화였다. 내 판단은 전교생 예방주사도 맞을 필요 없고 휴교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우리 집 아이를 녹두죽 먹였더니 회복되었다. 교장 선생께 결석한 아이 집에 전화해서 녹두죽 먹이라고 했더니 3명 다 그 다음날 등교했다. 다음날 학교 급식을 녹두죽으로 했고 무사히 넘어갔다. 이것은 심각한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일 저질러 놓고 만약 독감 환자가 더 발생하고 결석한 아이가 치료가 안 되었다면 교장 선생은 무슨 문책을 당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기사화 될 큰 위험이 도사린 중대한 사건이었다. 나 또한 공동 책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하지 말자. 광덕 초등학교는 2년 동안 유기농 급식을 해왔던 학교였다. 간식까지도 유기농으로 했었고 식용유 대신 들기름, 참기름을 써왔었다. 닭고기도 배합사료 먹이지 않는 닭고기를 먹였고, 부모들도 교육을 시켜 간식거리도 유기농으로 바꾸고 있을 때였다. 만약 애들이 유기농 급식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영양사의 염려에 부모들은 굶기라고 했다. 학교서 굶으면 집에서 먹이면 된다고 하면서 어렵게 이어가는 유기농 급식이었다. 이렇게 잘 다스려놓은 학교이니 전국적으로 유행되었던 독감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감기란 몸에 독이 들어왔을 때 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감기 중에서 독이 더 많이 들어온 감기가 독감이다. 구체적으로 감기(感氣)는 기운을 느끼는 것이다. 평소엔 기운 말고 추운 기운을 느끼는 것이 감기인데, 독감(毒感)은 독을 느끼는 것뿐이다.

외국 어느 곳에서 상업적으로 짐승을 가두어 놓고 밀집해서 기른다. 기르다보니 속성으로 길러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기른다. 빨리 크라고 성장촉진제를 주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밀집해서 기르고, 주사 놓고 배합사료에 병 나기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기른 축산에서 난 병원균이었다.

동물은 같은 동물이지만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걸어 다니는 동물이 있다. 이 동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병균이 옮기게 된 것이다. 사실은 동물들에게 독이 있는 균이 발생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동물이 원인제공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 네 발 달린 동물은 은혜를 갚으라고 빗지고 못살아 두 발로 걷는 동물들에게 환원시켜준 것뿐이다.

그러나 두 발 달린 동물들은 이러한 병균만 유행하면 네 발 달린 동물이나 두 발과 날개 있는 동물까지 모조리 없앤다. 병원균이 있고 없고를 문제 삼지 않고 모두 다 물어 버린다. 이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돼지들이 독감이 걸리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동물들을 축산에서 가축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두 발로 걷는 동물들이 네 발로 기는 동물들에게서 오는 병원균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성 균들이 오게 되면 축산에서 길러낸 네 발 동물들을 많이 먹어둔 두 발 동물들이 먼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유행성 독감균들이 자기와 같은 기질을 가진 두 발 동물들과 먼저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감지하기 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세포들이 알아서 접근하기 마련이다.

이번 기회에 두 발 가진 동물들은 네 발 가진 동물들을 적당히 괴롭히고 고기 얻어먹어야 한다. 죽기 직전까지 혹사시키다가 숨 넘어 가기 전 도살해서 위생 검증 받고 무슨 상표 붙여 비행기 태워 보내고 배 태워 몇 달 썩 보낸다. 이런 고기들을 다시 더 안 좋은 고기 되지 말라고 약품처리해서 냉장고에 얼려놓고 두고두고 몇 년 간 먹고 있는 두 발 동물들이 있다. 그런 곳에서 생겨난 병균은 빠른 속도로 두 발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비행기 타고 먼저 와서 기다리다 더 먼저 와서 몸에 익숙한 두 발 동물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신속히 접근하게 된다. 꼭 그날 그 때 그곳 네 발 동물 안 먹었어도 체내에서는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❷